

새출발기금 연계 소상공인 재기 지원 본격화

전북자치도, 경영 상황·재기 단계 맞춘 맞춤형 회복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새출발기금'과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과 연계해 추진되며,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사업 수행을 맡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제3차 협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마쳤다. 지원 대상은 폐업 소상공인과 현재 사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으로 나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선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등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비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폐업 지원을 넘어 생계 안정과 재도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선 바우처 방식의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이 제공된다. 전기공사, 간판 교체, 여닝 설치, 도배 등 현장 수요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영업 지속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사업이 채무조정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과 재기 단계에 맞춘 맞춤형 회복 지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되는 가운데, 도 차원에서도 적극

적인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체감도 높은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3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은 18일 본점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제1회 JB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투자 전략

전북은행, VIP 고객 대상 JB자산관리 세미나 가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관리 전략 제시에 나섰다. 전북은행은 18일 본점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제1회 JB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은행 PB센터가 주관해 '시장 변동성에 대한 투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보다 심층적인 정보 제공과 맞춤형 상담을 위해 20명 이내 소규모로 운영됐으며, 참가자들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투자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외 주식시장과 채권, 유가, 외환 등 주요 자산군 전반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유동성 확대와 함

께 투자 기회와 변동성이 동시에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이 공유됐다. 전북은행은 단기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분산투자과 체계적인 자산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리스크 관리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 방향을 제시했다.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전북은행 PB센터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정교한 자산관리 전략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VIP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세미나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138개 엄선된 국가전략기술, 중기부가 100개 과제 지원한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연구개발 2차 시행계획 공고... 4월 7~20일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2차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유망 공공 기술 사업화를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 발표된 1차 시행계획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고난도 기술의 기술성숙도(TRL)를 높이고 사업화 연계하기 위한 'TRL 점프업(1단계)' 프로그램이다. 기술성숙도는 기

술 개발 단계의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연구 성과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가능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는 기술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신설됐다. 특히 이번 1단계 사업은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고난도 공공기술을 실제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으로, 지정공모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상반기에는 총 100억 원 규모로 100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1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험실 단계 기술의 초기 검증과 개발 방향 설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등 12개 국가전

략기술 분야에서 총 138개 과제가 발굴됐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촉진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단계형으로 운영되며, 1단계 수행 과제 중 우수 과제를 선별해 2027년 2단계 사업화 연구개발로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7일부터 20일까지 범부처융합연구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한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총 6,000만 원 규모의 성금을 바탕으로 2026년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 성금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을 발굴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지역복지와 문화·예술·스포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분야와 시설·단체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기능보장 분야로 나뉜다. 기관당 최대 400

만 원까지 지원되며, 두 분야에 대한 중복 신청은 제한된다. 신청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등이다. 특히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은 우대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전북은행 본점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부는 18일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에서 도내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한자리에 모아 안내해 현장 참여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지원기관이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소개했다. 각 기관은 지속가능한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방안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특례 신용보증 등 분야별 핵심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긴급처방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과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Stand-Up 맞춤형지원(긴급처방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 징후를 보이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주요 경기지표를 기반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경영 위기와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입주한 기업으로, 대상 여부는 전북위기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은 기업 현장실사를 통한 위기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술지원'과 '사업화지원'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기술 지원은 기술정보 분석과 멘토링, 지식 재산권 및 인증, 시험·성능 분석 등을 포함하며, 사업화지원은 마케팅, 디자인 개발, 투자유치 자료 작성, 물류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규모는 총 1억 원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경진원, 일본·대만 시장 개척 위해 무역사절단 파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일본과 대만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에는 ㈜씨티엔에스 등 총 10개 기업이 참여하며, 오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

해 수출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기업들은 화장품과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들과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일본과 대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역 및 물류 거점으로, 코스메틱과 식품, 소비재 분야에 높은 수요를 보이는 시장이다. 이

에 따라 지속적인 시장 진출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평가된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지 파트너사를 활용해 일본과 대만의 유력 바이어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참가 기업에 제공했다. 또한 현지 상담에 그치지 않고 사절단 종료 이후에도 바이어와의 추가 협의와 계약 추진 등 사후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